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수,목,금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되고 있습니다.

3. 추수감사주일

11월 23일(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4. 주일설교

오늘 주일설교는 정요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 (10/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동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98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5.11.2 (628호)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한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열왕기하 5:1-7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흠 한준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11월 9일

11월 16일

서경열

최은숙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독생자 예수까지 죽일 것을 이미 아시고도 그 계획을 실행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목적은 바로 위선과 가식으로 겹데기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오늘 날 죄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 내는지에 고발이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인해 그들을 용서할 것임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너무나 유명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혹자들은 이 이야기마저 문자적으로 이해해 버려서, 세금 논쟁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국가에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교회에 헌금도 성실히 내라는 말도 안되는 엉뚱한 적용과 해석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을 기각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주의의 상징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다시 세상의 질문, 율법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그러십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였습니다. 원래는 성전안에서 데나리온이 발견되면 안됩니다. 성전 안에서는 동전 교환하는 곳에서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데나리온에는 당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황제의 것이 존재합니까? 인간의 것이 존재합니까? 우주만물도,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시간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임시로 소작농들에게 땅을 맡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인간 세상을 상징하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갈취해서 거기에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인 황제의 형상을 새겨 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다는 사람들 마음 속에 황제의 형상을 품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황제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대체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아 버린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성경을 거울로 삼아 날마다 비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품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